

갯벌 보전·재해 예방·농촌 관광... 고창군, 예산 확보전

17개 부서별 전략 회의... 내년 부처예산 반영 대응 전략 마련

고창군이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노형수 부군수 주재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신활력경제정책과 등 17개 부서별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각 부처 예산안이 막바지 조정 과정을 남겨둔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핵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는 등 부처 설득노력 마련에 집중했다.

고창군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사업비 4115억원 규모의 총 89건의 신규사업에 대응해 왔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홍보를 위한 '심원면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 건립사업(196억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비 550억원 규모 5건의 사업에 대해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또 대신면 회룡지구 가뭄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200억원) 등 총 사업비 670억원 규모의 13건의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다각도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농촌협약은 사업비 약 590억원 규모이며 202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된다. 군은 축사 및 폐교를 비롯한 각종 유휴시설과 유해시설을 재정비해 농촌관광 활성화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으로 공모사업에 뛰어 들었다. 6월 초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는 "안정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역사·문화·생태 도시 고창군의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활용,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이 지난 22일 노형수 부군수 주재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신활력경제정책과 등 17개 부서별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고창군 제공>

정읍시, 70억 투입 농촌신활력사업 본격화

3개 분야 10개 사업... 일자리 창출·자립기반 구축 등

정읍시가 지역 농업·농촌의 활성화 사업을 위해 70억원이 투입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읍시는 최근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추진위원, 전정기 농기센터장, 관련부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읍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운영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읍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난해 5월

운영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시민의견 수렴, 정책토론, 중간보고, 추진위원회의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모두 마쳤다.

이번 기본계획은 '맛-멋-향 서로 이음 로컬그룹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비전으로 3개분야 10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

올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자문회의와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며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중심이 돼 사업을 추진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과 내실화로 농식품부 최종 승인까지 잘 마무리하고 농촌신활력 사업이 정읍의 농업·농촌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북출신 농협임직원들의 '고향 사랑'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원 전달



전북출신 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정착을 기원하며 정읍시에 3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사진>

NH농협정읍시지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농협은행이 출시한 고향사랑기부제 특화상품 'zgm.고향으로카드(지금 고향으로카드)'를 홍보하고자 범농협 전북출신 임직원 8명이 뜻을 모아 3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정읍시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zgm.고향으로카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고객에게 NH포인트 혜택을 제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농협경제지주 소매채인본부 이방현 상무는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북출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읍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부에 참여한 이들은 ▲농협경제지주 소매채인본부 이방현 상무 ▲농협은행 데이터본부 정재호 부부장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부문 오정석 부사장 ▲농협은행 전북본부 장경민 본부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투자지원부 이희운 부장 ▲전북농협노동조합 박병철 위원 ▲농협은행 인후동지점 진기영 지점장 ▲정읍시지부 이재연 지부장 등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지구가 보내는 '기상·기후' 위험 신호 남원시 다음달 6일까지 사진전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기상·기후 사진전'에 전시될 예정인 윤석주 작가의 '성벽을 향해 날아드는 불화살(제40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수상작)'

남원시가 '제93회 춘향제'와 현충일 연휴를 맞아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4일부터 6월6일까지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 '기상·기후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천문대 입장객에 한해 전주 기상지정 기후서비스과에서 대여받은 '제40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기상학자들은 올 여름 열대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소보다 상승하는 '엘리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진전은 전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느끼고 지구환경에 관심을 갖게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천체관측을 할 수 있는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는 요즘 일출 후에 밝게 보이는 초저녁 금성(개밥바라기)과 쌍성 미자르 관측이 가능하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신비로운 우주 관측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실시한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338개

재난안전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원시는 ▲재난관리기금 운영 실적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지진 안전성 확보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실적 ▲재난발생시 신속한 통동조치 역량 ▲복구사업 관리역량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남원시는 장관표창과 함께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4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